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국의 반응

우리나라에서는 노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던 22일은 제 20회 「지구의 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오존층 파괴 등 각종 환경파괴현상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자는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1천여명의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석유재벌인 엑슨사 건물앞에 모여 지난달 말 이 회사 유조선이 알래스카 부근 바다에 좌초하면서 엄청난 양의 원유를 유출시킨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탈리아의 로마에서는 1천여명의 군중이 오존층의 파괴를 개탄하는 시위를 가졌으며, 서독 프랑크푸르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웨덴, 인도 등지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다.

굳이 이날의 행사들을 빌지 않더라도 전세계의 많은 환경보호운동가들과 학자들은 멀지않은 장래에 닥쳐올 지구의 재앙을 끊임없이 경고해왔으며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89년 첫호에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 지구의 운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시사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보존대책이 수시로 연구 발표되고 정부차원의 지구환경보전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일성/본협회 홍보부장



올해 3월에 들어서만도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여러차례 열렸다. 지난달 5일에는 런던에서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려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CFC(염화불화탄소)의 사용금지」를 촉구했으며, 11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환경스미트」에서는 「지구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 유엔내에 「환경감시기구를 신설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국제회의」에서는 「산업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산업 폐기물의 수출과 수입) 금지」에 합의했다.

또, 미국의 경우 부시 미대통령은 국방비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으로 대기오염 연구비용으로 43억 달러를 증액하고,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강대국 정상회담을 내년초 워싱턴에서 개최하고자 제안하고 나섰다.

30여년전 썩어가던 템즈강을 회생시켜 「템즈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영국에서도 지난 3월초 개최했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런던회의의 성공에 힘입어 대처총리 주도로 내각 「환경문제연구회」가 조직되는 등 국제적인 환경오염운동에 발맞춰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공해추방운동이 일고 있다.

정치권이 직접 공해문제 해결에 나섰다던 경우는 일본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적되는 것이 1968년부

터 12년간 동경지사를 지낸 미노베 료기치(美濃部 亮吉)가 추진했던 공해방지 정책들이다.

당시 사회당과 공산당의 지지로 당선된 이노베 지사는 심각한 대기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던 동경하늘을 맑게 하기 위해 공해방지조례 등을 제정, 공해배출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펴나갔다.

그가 성안시킨 동경공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는 공해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 공해방지와 경제발전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일본 공해대책 기본법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내용이었다. 결국 혁신파였던 미노베지사의 노력 덕분에 동경 하늘의 스모그는 감소되었고 시민들은 다시 푸른 하늘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수은중독, 카드뮴중독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진폐증환자까지 나오는 우리 현실에서 선진국 정치권들이 공해문제를 현안으로 다루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서울시내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치의 2배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세대와 우리 자손이 살아갈 유일한 땅인 이 강산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도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시원한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